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성과와 향후 과제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 형 길

I. 서 론

지난 40여년 간 우리경제의 성장을 이끈 추격형 전략은 글로벌 경제 위기와 신흥 산업국가의 추격 등에 따라 한계에 봉착했다. 최근 한국경제는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위축되고, 고용흡수력이 약화되면서 청년 실업인원이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러한 고용 없는 성장 지속, 청년실업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성장과 복지가 균형을 이루는 사회”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증대되어 왔다. 이러한 흐름 속에 창조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분야는 고용창출과 경제민주화였으며,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론에서도 창조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민선 5기의 우근민 지사는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비전으로 고도의 분권 자치 구현과 세계경제시장의 개척, 다원화 사회의 복지 실현, 환경자산의 가치 보전이라는 5가지의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세계적 모범이 되는 특별자치 실현과 자립형 경제기반 구축 등 10대 전략을 선정하여 지난 3년간 이를 달성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동안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바라보는 메가 관광시대를 열었고, 지방재정의 재무건전성 확보, 사회적기업 수의 증가에 따른 고용 창출, 제주형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등 다양한 부문의 성과들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중심으로 그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하고자 한다.

II.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성과

1. 일자리 창출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의 공약사항 중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룬 분야 중의 하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전국 최고 수준의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선 5기의 지난 3년 간 일자리 창출 현황은 다음(768명), 벅슨(308명), KT콜센터(170명) 등 성장유망기업 유치 성과 등으로 2010년 이후 2013년 3월까지 총 9,218개를 창출하였으며, 2013년 3월 기준으로 전체 고용률은 전국평균 59.8%보다 5.9% 높아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청년창업 및 체감형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 확대와 창업보육실 확충(82실→136실), 도내 대학교 총학생회와 공동 주관으로 '12년 상반기('12.5.18), 하반기('12. 9. 21) 청년 Job Fair 정기 개최(연 2회)로 기업 구인 수요의 대응성을 제고하여 57명이 취업하였다. 또한 전국 최초 대학 미취업 졸업생 대상 청년일자리지도(Job Map) 실시로 직업상담사 3명을 통한 동행면접 등으로 325명('12 ~ '13. 3)이 취업하였고, 기업 구인정보 제공 확대를 위한 청년 일자리코너를 확대 개편하여, 3,374개 업체 5,093명 구인계획 정보를 알리는 등의(조회수 86,035회) 성과로 청년고용률이 42.3%(전국평균 39.2%)로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민선 5기(3년간) 일자리 창출 현황

| 구 분 | 2010 | 2011 | 2012 | 2013. 3월 | 비고 |
|----------------|------------------|------------------|------------------|------------------|-----------|
| 일자리 창출 | 1,175개 | 3,354개 | 3,492개 | 1,197개 | 9,218개 창출 |
| 전체 고용률 (전국) | 64.8% (58.7%) | 65.8% (59.1%) | 66.2% (59.1%) | 65.7% (59.8%) | 전국 1위 |
| 청년 고용률 (전국) | 39.3% (40.3%) | 41.5% (40.5%) | 42.0% (40.4%) | 42.3% (39.2%) | 전국 2위 |

* 자료 : 통계청 KOSIS, 고용률 통계

취약계층 고용에 확실한 성과가 있는 사회적 기업 수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 14개에서 2013년 6월 현재 74개로 428%가 증가하였으며,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2010년 대비 298%가 증가한 662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이는 10만명 당 인구 대비 사회적기업 수 10.2개로 전국 최고 수준인데, 우근민 지사 취임이후 사회적 기업 발굴·확산으로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대한 성과로 보인다. 특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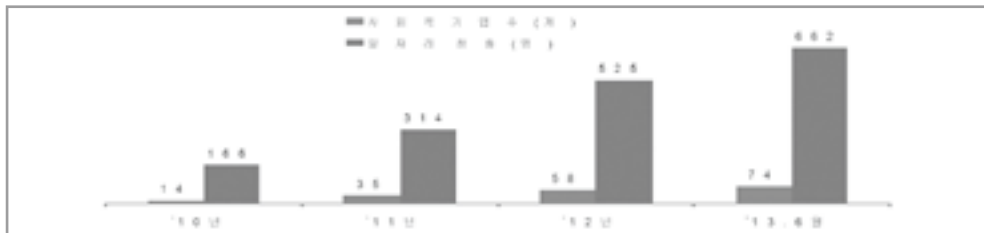
사회적기업의 제품구매를 위해 도가 적극 참여하여 자립을 지원하고 있는데, '10년 구매실적이 386백만원에서 '11년 682백만원으로 증가하였고, '12년 1,697백만원의 구매 참여 활성화로 '10년 대비 340% 구매 증가하였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배너 개설, 기업홍보 등 판로개척 지원, 민간 네트워크 구축, 제품홍보 한마당행사 확대, 1사 1사회적기업, 프로보노 등 자원 연계 확대 사업을 시행하였다.

〈표 2〉 사회적 기업 현황

| 구 분 | 2010 | 2011 | 2012 | 2013. 6월 | 비 고 |
|---------|------|------|------|----------|------------------|
| 사회적 기업수 | 14 | 35 | 58 | 74 | '10년 대비 428%↑ |
| 일자리 창출 | 166 | 314 | 525 | 662 | '10년 대비 298%↑ |

* 제주의 사회적 기업은 10만명 당 인구대비 전국평균 4.0개보다 훨씬 높은 10.2개

〈그림 1〉 사회적 기업과 일자리 창출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2013)

또한 전국 최초 민간기업 통합 정기공채 실시로 공정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였는데, 2012년 채용인원은 44명이었고, 2013년 제1차 공채로 159명을 채용하여 전년 대비 261%가 상승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청년창업 및 체험형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조례를 제정('12. 5)하였으며, 청년고용포럼을 발족('12. 4)하였고, 공개경쟁을 통한 사업계획서 평가 등을 통해 40세 이하의 선정된 지원자에게 1,000만원 내외의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청년창업프로그램인 나사장프로젝트를 통해 창업 15명, 신규고용 14명의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20,000개 이상 창출로 고용률 목표 초과 달성(68 → 70%)하였는데, 노인일자리 창출은 '10년 2,015명 고용에 30.1억원의 성과를 올렸으며, '13년에는 고용 3,646명에 68.9억원의 성과를 내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보

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사업 평가에서 '11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12년도 에는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협동조합 설립 안내상담센터를 개설·운영하 여 적극적으로 협동조합을 육성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사업 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활단체, 돌봄노동, 대안기업, 청소, 공동육아, 지역공동체사 업 등 소액·소규모 창업 활성화로 취약계층 경제활동 지원,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 으며, '13년 6월 현재 14개 협동조합(조합원 154명)이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다.

2.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최근의 유통환경은 외국의 유통기업은 물론 국내 대기업들이 직영하는 백화점, 대 형할인점 등의 대형소매점포와 편의점과 슈퍼슈퍼마켓(SSM) 등의 대자본과 글로벌 경영시스템을 갖춘 신유통업체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유통구조가 전통시장과 중소 슈퍼마켓 등 자영업자 중심에서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등 글로벌 기업형 중심으 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보급과 확산에 힘입어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011년 999조2,500억 원으로 10배 가까이 성장했는데, 그 중에서 B2B의 전 자상거래 규모가 912조 5,620억원으로 전체의 91.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년대 비 22.1%가 증가한 수치이며, B2C거래액은 29조 620억원으로 전년대비 15.3% 증가 하였다. 이러한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SSM, 할인점, 무점포판매, 편의점 등의 업체와 도매 배송업 등의 신업체는 큰 폭으로 성장하고, 슈퍼마켓, 백화점, 전통시장 등의 구업체는 그 성장 잠재력이 대폭 축소되고 업체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한편 소비자는 편리하고 쾌적한 쇼핑환경을 선호하며, 소비자의 가치추구 및 웰빙 선호 성향으로 가격과 양 위주의 구매에서 탈피하여 고품질, 친환경, 명품브랜드, 소 포장단위를 선호하는 등 소비자 니즈 및 라이프스타일이 변화하고 있다. 또한 소비 자의 쇼핑패턴의 변화에 부응하고 업체 간 경쟁격화에 따른 대응전략으로 대고객 서 비스가 강화되고, 타 업체와 차별화를 위해 엔터테인먼트형 점포, 체험형 점포 등이 출현하고 있다. 또한 소득수준의 향상과 급속한 정보화 사회의 성숙으로 인해 '상품 가치', '시간 가치', '서비스 가치', '분위기 가치', '가격 가치' 등 가치가 중시되는 사회 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변화는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의 매출증대에 매우 어려운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도 제주지역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별 브랜드화 및 마케팅

강화, 주차장·공연장 등 고객 이용 편의를 위한 쇼핑환경 개선, 제주사랑상품권을 매년 25억 확대 발행지원하여 생산유발효과 61억원, 시장상인 체감효과 1,000억원 등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전국전통시장 잠재경쟁력 평가에서 2010년에는 1위, 2012년 3위를 차지하였다. 시장별로는 전국 1,511개 시장 중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1위, 동문시장 4위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의 중요한 지표인 1일 평균 매출액이 '10년 10,023만원에서 '12년 12,680만원으로 126.5% 증가하였으며, 일평균 방문 고객수도 '10년 2,908명에서 2012년 4,108명으로 141.3% 증가하였다.

〈표 3〉 전통시장 일 평균 매출액 및 평균 고객 수 동향

(단위 : 만원,명)

| 구 분 | 2010년 | | 2011년 | | 2012년 | |
|--------|---------|---------|---------|---------|---------|---------|
| | 일평균 매출액 | 일평균 고객수 | 일평균 매출액 | 일평균 고객수 | 일평균 매출액 | 일평균 고객수 |
| | 10,023 | 2,908 | 11,097 | 3,564 | 12,680 | 4,108 |

또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을 신설('12.1)하여, 골목슈퍼 컨설팅, 골목상권 점포들의 시설개선 및 특별보증을 통한 경영안정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12년도 소규모 슈퍼마켓 경영컨설팅 및 시설개선 지원 사업 63개소 경영성과 분석 결과 32개 점포(58.1%)가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 1,206명 특별보증으로 18억원의 이자경감 효과가 발생하였는데, 저(低) 신용자를 위한 '민생안정특별보증' 제도('13. 3. 20)를 정부의 '국민행복기금'('13. 4. 22)보다 먼저 시행하였는데, 이러한 공적을 인정받아 우근민 도지사는 유권자시민행동으로부터 제1회 유권자 대상을 수상('13. 5)하였다.

III. 향후 과제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박근혜정부의 새로운 경제

전략인 창조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제주지역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의 향후과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

일자리는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인간이 존재하는 의미와 가치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은 도민들을 위한 중요한 복지정책이 될 수 있는 만큼 사회 통합의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핵심적인 정책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동안 지방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의 성공적 추진으로 괄목할 만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증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아직 제주지역의 일자리는 선진지역이나 선진국에 비해 양과 질적인 면에서 아직 많이 부족하고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자리의 양과 질을 선진지역이나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문적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더욱 많이 창출해야 하고 다양한 정책개발 및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단체장의 공약을 반영하여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공시하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지원하는 제도인 지역 일자리 목표공시제가 국정 목표인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아갈 때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제주지역의 특성에 부합되고 업종면에서 경쟁우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타 지역의 건설한 기업들의 지속적인 이전과 창업 활성화 정책을 꾸준히 수행해가는 한편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수출주도형 비즈니스모델을 추구하는 ‘제주 실리콘 밸리’ 조성을 통한 청년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제주에 와서 일하고, 살고 싶어하는 귀농, 귀촌 의향을 가진 우수한 인력들의 재능과 네트워크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통한 귀농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연계, 사회적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2.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제주지역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풀뿌리로 민생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데, 제주지역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전략적 방향은 제주를 방문하는 연간 1,000만 가까운 제주방문 관광객들을 유입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작업이다.

예를 들면,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편리하도록 주차장을 확보하고, 관광객들이 구입할 수 있는 맞춤형 상품 구비와 전통시장다운 시설 및 환경조성에 의한 향수마케팅

과 먹거리, 살거리, 즐길거리를 갖춘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콘텐츠를 갖출 필요가 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주지역 골목상권의 업종별 정기적인 실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해가기 위한 정책의 실행과 제주지역 골목상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로드맵인 중장기 발전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

제주지역 전통시장의 매출증대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시장별로 차별화된 핵심상품을 중심으로 전통시장의 특성을 포지셔닝할 수 있는 특화된 상품 군의 취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그동안 제주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괄목할만한 기여를 하고 있는 제주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홍보사업 지원금을 더욱 확대하고, 제주사랑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제주사랑 상품권 구매 협력기업 및 단체들과 이용촉진협약 추진 및 협조 요청 등과 홍보캠페인을 강화하는 등의 행·재정 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주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경영의 주체들인 상인들의 기업가정신 함양과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상인대학, 맞춤형 교육, 특강, 성공시장 견학, 국외 우수시장 시찰 등 시장과 고객에 대한 상인의식 전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특히 전통시장 내에 야시장 개설을 통해 전통시장의 집객력을 높이고, 제주지역의 오일시장들 중에서 고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일부 오일 시장들은 상인들과의 협의를 거쳐 과감하게 주말시장으로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들은 지역밀착마케팅 강화로 단골 고객층을 확충하고, 상품의 다양성과 신용카드 사용률을 지속적으로 제고시켜 갈 필요가 있다. 또한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주지역 전통시장의 온라인쇼핑몰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SNS 마케팅도 앱을 이용하여 전통시장의 위치를 알려주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므로, 젊은 층의 호기심과 기대감을 자극하고, 무작위로 할인 상품이 바뀌고, 할인을 또한 과격적으로 제시하는 등 소셜커머스 마케팅을 더욱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